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생쥐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생쥐 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완성된 이름

생쥐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생쥐

한눈에 보는 기록

뜻

젓과의 하나. 몸의 길이는 6~10cm, 꼬리의 길이는 5~10cm이다. 야생종은 몸 윗면이 잿빛을 띤...

요약 연대표

표기	19세기	20세기	현재
새앙쥐	-	-	-
시앙쥐	-	-	-
생쥐	-	-	-
시앙쥐	-	-	-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젓과의 하나. 몸의 길이는 6~10cm, 꼬리의 길이는 5~10cm이다. 야생종은 몸 윗면이 잿빛을 띤 갈색이다. 인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검은 회색, 다색, 검은색 따위이고 몸 아랫면도 희지 않다. 귀가 크고 위턱의 앞니 뒷면에 점각이 있는데 위턱 제1어금니에 두...

🕒 문헌의 첫 기록

19세기

📖 수록 용례

15개

📄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7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생쥐'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젓과의 하나. 몸의 길이는 6~10cm, 꼬리의 길이는 5~10cm이다. 야생종은 몸 윗면이 잿빛을 띤 갈색이다. 인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검은 회색, 다색, 검은색 따위이고 몸 아랫면도 희지 않다. 귀가 크고 위턱의 앞니 뒷면에 점각이 있는데 위턱 제1어금니에 두 개의 돌기가 있다. 한 배에 3~8마리의 새끼를 한 해에 네 번 정도 낳는다. 유전학, 의학, 생리학 따위 여러 가지 실험용이나 애완용으로 기르며 야생종은 극지방을 제외한 전 세계에 분포한다.



생쥐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생쥐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새양쥐 사전 표기 요약	—	—	—	—	●→	●→
생쥐 사전 표기 요약	—	—	—	—	—	●→
시양뿔 문헌 수록 표기	—	—	—	—	●→	—
수양쥐 문헌 수록 표기	—	—	—	—	●→	—
새양쥐 문헌 수록 표기	—	—	—	—	●→	—
시양쥐 문헌 수록 표기	—	—	—	—	—	●→
시양쥐 문헌 수록 표기	—	—	—	—	—	●→

표기·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시양쥬 문헌 수록 표기	—	—	—	—	—	● →
싱쥬 문헌 수록 표기	—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4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새양쥬
19세기20세기
- 생쥬
20세기현재
- 시양뒤
19세기
- 시양쥬
20세기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9종

새양쥬, 시양뒤, 수양쥬, 새양쥬, 시양쥬, 시양쥬, 시양쥬, 싱쥬, 생쥬

↳ 생쥬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 옛 표기와 등장 시기

‘생쥬’의 옛말인 ‘새양쥬’는 19세기부터 나타난다.

ㄷ 말의 구성과 어원

‘새양쥐’는 ‘새양’과 ‘쥐’가 결합한 것이다. 어휘집에서 작은 쥐를 뜻하는 ‘小鼠’(소서)에 대응시킨 것으로 고려하면 ‘새양’은 작음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ㅅ 표기와 소리의 특징

19세기에 나타나는 ‘새양쥐’는 ‘새양쥐’의 제1음절에 있는 ‘ㅣ’[j]가 제2음절에도 표기된 것으로 이 둘은 표기만 다를 뿐 실제 발음은 동일했다. 근대 국어 후기에 ‘ㅅ’과 ‘ㅣ’가 뒤섞여 쓰이면서 ‘새양쥐’가 ‘시양쥐’로도 나타났고 ‘시양쥐’의 제1음절에 있는 ‘ㅣ’[j]가 제2음절에 표기된 것이 19세기의 ‘수양쥐’이다. ‘시양쥐’는 20세기부터 발견되지만, ‘수양쥐’를 볼 때 19세기에도 이미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세기에 ‘시양뒤’도 보이는데, 이는 ‘ㅅ’과 ‘ㅅ’이 표기에서 섞여 쓰이고 ‘쥐’를 구개음화를 겪은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뒤’로 과도 교정하여 나타난 것이다. 또한 20세기에 ‘시양쥐’는 물론, ‘시양쥐’의 제1음절과 제2음절이 축약된 ‘싱쥐’도 나타난다.

⇒ 오늘의 형태로 이어진 과정

20세기에 ‘시양뒤’, ‘시양쥐’, ‘싱쥐’ 등 여러 형태가 쓰였으나 ‘생쥐’로 굳어져 현재까지 이어진다.



문헌 속의 생쥐

전체 용례 15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9세기 시양뒤, 새양쥐, 수양쥐 외 1종 용례 6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시양뒤, 새양쥐, 수양쥐, 새양쥐

출처 1865 흥부전 단:2L

용례 01

66 문헌 용례

시양뒤가 쌀알을 어드려고 밤낮 보름을 다니다가.

현대어 풀이

생쥐가 쌀알을 얻으려고 밤낮 보름을 다니다가.

출처 1880 한불사전 367

용례 02

66 문헌 용례

새앙쥐 [小鼠].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896 국한회어 곤:171

용례 03

66 문헌 용례

새앙쥐 [小鼠].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897 독립신문 7월 1일 1면

용례 04

66 문헌 용례

산쥐 들쥐 흰 수양쥐 집에 잇는 쥐가 다 이 종류 밋히 들어오는 거시라.

현대어 풀이

산쥐, 들쥐, 흰 생쥐, 집에 잇는 쥐가 다 이 종류 아래에 들어오는 것이다.

출처 1897 독립신문 7월 6일 1면

용례 05

66 문헌 용례

대개 잡아먹는 짐승은 쥐와 수양쥐와 그런 사릅들의게 유익지 아니흔 짐승들을 잡아먹는 거 시니.

현대어 풀이

대개 잡아먹는 짐승은 쥐와 생쥐와 그런, 사릅들에게 유익하지 않은 짐승들을 잡아먹는 것이니.

출처 1899 독립신문 10월 19일 2면

용례 06

66 문헌 용례

히여진 의복과 더러운 얼굴이 굴뚝 속에서 나아온 새앙쥐 곱흔 ㅎ하들이.

현대어 풀이

해어진 의복과 더러운 얼굴이 굴뚝 속에서 나온 생쥐 곱흔 아이들.

20세기 시양쥐, 시양쥐, 시양쥐 외 3종 용례 9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시양쥐, 시양쥐, 시양쥐, 싱쥐, 생쥐, 새양쥐

📖 출처 1908 귀의성 ? :2778-2779

용례 07

66 문헌 용례

문풍지 써는 소리만 들려도 점순이 오느냐 시양쥐가 밧삭 후는 소리만 들려도 점순이 오느냐.

📖 현대어 풀이

문풍지 떠는 소리만 들어도 "점순이 오느냐?" 생쥐가 바싹 하는 소리만 들어도 "점순이 오느냐?".

📖 출처 1908 한월 하:67

용례 08

66 문헌 용례

속으로는 시양쥐 갓튼 총명으로.

📖 현대어 풀이

속으로는 생쥐 같은 총명으로.

📖 출처 1908 치악산 상167

용례 09

66 문헌 용례

금의옥식을 주체 못후는 부자집도 있고 시양쥐 불가심할 쌀 한 톨 업는 가난뱅이 집도 있느디.

📖 현대어 풀이

화려한 옷과 좋은 음식을 주체 못하는 부잣집도 있고 생쥐 불가심할 쌀 한 톨 없는 가난뱅이 집도 있는데.

📖 출처 1912 명월정 '14'

용례 10

66 문헌 용례

시양쥐 불가심 할 것도 싸아 둔 것이 업는 작자가 양모 능라수 주의가 웬일이요.

📖 현대어 풀이

생쥐 불가심 할 것도 쌓아 둔 것이 없는 작자가 양모, 능라사 주의가 웬일이요.

📖 출처 1920 동아일보 6월 29일 1면

용례 11

66 문헌 용례

나는 煙突에서 나온 싱쥐 갓더이다.

📖 현대어 풀이

나는 연돌에서 나온 생쥐 갓더이다.

📖 출처 1921 동아일보 6월 27일 3면

용례 12

66 문헌 용례

위선 내 몸이나 살자 하는 듯키 싱쥐와 가치 살살 싸져 다라나고.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출처 1923 동아일보 10월 28일 6면

용례 13

66 문헌 용례

머리 감은 생쥐가 들낙날낙 다 싸먹고 밤 한 말을 남겼더라.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출처 1925 동아일보 1월 30일 6면

용례 14

66 문헌 용례

밤 한 말을 사서 고무다락에 치쳐 두었더니 머리 감은 새앙쥐가 다- 싸먹고 밤 한 톨이 남았거
늘.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출처 1926 동아일보 12월 4일 3면

용례 15

66 문헌 용례

고양이에게 쫓긴 생쥐가 솥채 구녕에 머리를 틀어박고.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생쥐에 관한 주석

‘생쥐’를 ‘사향쥐(麝香쥐)’에서 온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런데 《한불자전》에서는 아주 작은 생쥐를 뜻하는 ‘새앙쥐 小鼠’와 사향 냄새가 나는 작은 쥐의 종류를 뜻하는 ‘사향쥐 麝鼠’를 구별하고 있다. 참고로 19세기에는 작은 쥐를 뜻하는 다른 단어로 ‘솜쥐’도 확인된다.

생쥐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생쥐의 뜻과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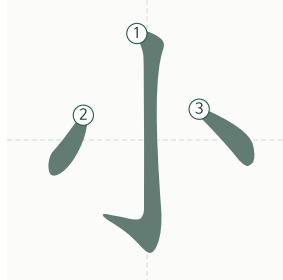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小

뜻·음 작을 소

총 3획 · 부수 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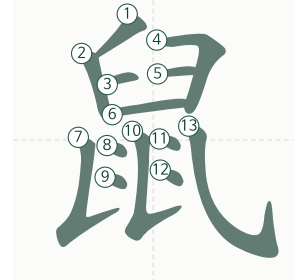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小/

鼠

뜻·음 쥐서

총 13획 · 부수 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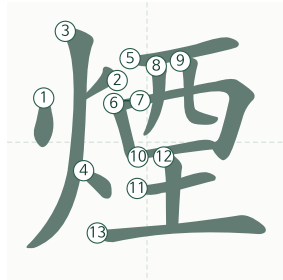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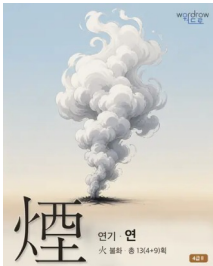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鼠/

煙

뜻·음 연기 연

총 13획 · 부수 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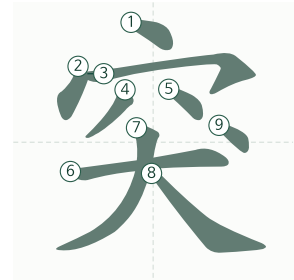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煙/

突

뜻·음 갑자기 돌

총 9획 · 부수 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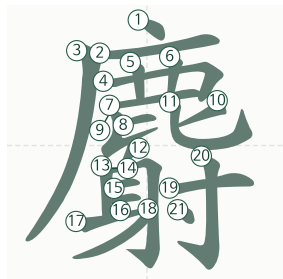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突/

麋

뜻·음 사향노루 사

총 21획 · 부수 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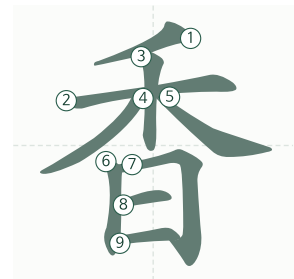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麋/

香

뜻·음 향기 향

총 9획 · 부수 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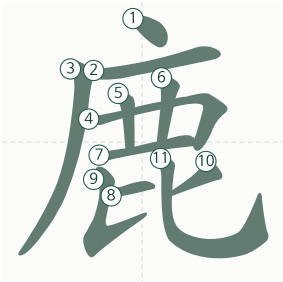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香/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鹿 뜻·음 사슴 록
총 11획 · 부수 鹿



hanja.wordrow.kr/한자/鹿/